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FEBRUARY 2025 02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강하고 담대하라



낙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Saeroun

현대인의 병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중에 하나가 우울증(Depression)입니다.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적어도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복지기구는 이제 우울증은 “제2의 팬데믹 전염병”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동반 질환이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과거로부터 온 상처인데, 이로 인해 미래도 상처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불안장애입니다.

크리스천이 낙망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분이 듣고 계신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은, 나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 내 마음이 겨울처럼 추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낙담하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영웅들이었던 모세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보면 영적으로 탈진되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던 시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거나, 내 어떤 죄로 인하여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직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믿음의 시험입니다. 모든 제품은 시장에 내놓기 전에 품질 테스트를 받듯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두어번 흔들어 보시면서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믿는 성도들이 낙망하고 우울해 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느낌일 뿐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낌에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귀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느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 할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이고 속상한 느낌 그대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깨웁니다. 낙망의 늪에 빠지려 할 때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워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 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때 우리는 점점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소망이 더디 이뤄지면 신실한 크리스천도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오랜 세월이 걸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낙망하기 쉽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 손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터널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내 미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시편 42편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이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관훈**

SAEROUN QT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 매주 화-토 6:0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강하고 담대하라



2025.
02

SAEROUN

QT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6	27	28	29
2	3	21	22
9	10	26	27
16	17	31	32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Blessing Shower			
23	24	36	37
라이트하우스 기도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0	31	1
		20
6	7	8
23	24	25
		권사 스쿨 개강
13	14	15
28	29	30
20	21	22
33	34	35
		남성사역 조찬 모임: 모닝 글로리 뉴젠 부모기도회
27	28	1
38	39	40

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5. 02

1	토	D-20) 거룩한 기업을 열망하라	민 27:6-11
2	주일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삼상 25:32-35 & 엡 4:26-27
3	월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삼하 16:5-14
4	화	D-21) 광야 학교의 목적	신 8:1-4
5	수	D-22) 광야 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신 8:1-10
6	목	D-23) 여호수아를 세우라	신 31:1-4
7	금	D-24) 두려워하지 말라	신 31:5-15
8	토	D-25)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신 3:23-28 & 34:1-4
9	주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 41:8-17
10	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행 27:20-25
11	화	D-26) 모세의 죽음	신 34:5-12
12	수	D-27)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수 1:1-9
13	목	D-28) 강하고 담대하라	수 1:1-9
14	금	D-29)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수 1:10-15
15	토	D-30)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수 1:16-18
16	주일	한(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삼상 1:1-20, 26-28
17	월	욘이 시험받은 이유	욘 1:6-12
18	화	D-31)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다	수 2:1-11
19	수	D-32) 라합의 믿음	수 2:12-24
20	목	D-33)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수 3:1-8
21	금	D-34) 기적의 요단강 도하	수 3:7-17
22	토	D-35) 길갈의 열 두 돌	수 4:1-18
23	주일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16:31-33 & 히 4:15-16
24	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마 1:18-25
25	화	D-36)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수 4:19-24
26	수	D-37) 할례와 유월절	수 5:1-10
27	목	D-38) 승리를 위한 준비	수 5:11-15
28	금	D-39)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수 6:1-9
3/1	토	D-40)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수 6:10-21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토

거룩한 기업을 열망하라

민 27:6-11

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and the LORD said to him,

7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What Zelophehad's daughters are saying is right.
You must certainly give them property as an
inheritance among their father's relatives and give
their father's inheritance to them.

8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Say to the Israelites, 'If a man dies and leaves no son,
give his inheritance to his daughter.

9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If he has no daughter, give his inheritance to his
brothers.

10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If he has no brothers, give his inheritance to his
father's brothers.

11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
니라

If his father had no brothers, give his inheritance to
the nearest relative in his clan, that he may possess
it. This is to have the force of law for the Israelites, as
the LORD commanded Mose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2

주일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삼상 25:32-35 & 엡 4:26-27

[삼상 25:32-35]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David said to Abigail,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has sent you today to meet me.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 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May you be blessed for your good judgment and for keeping me from bloodshed this day and from avenging myself with my own hands.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 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 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Otherwise, as surely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 has kept me from harming you, if you had not come quickly to meet me, not one male belonging to Nabal would have been left alive by daybreak."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 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Then David accepted from her hand what she had brought him and said, "Go home in peace. I have heard your words and granted your request."

[엡 4:26-27]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03

월

선으로 내게 값아 주시리라

삼하 16:5-14

-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
-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 10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값아 주시리라 하고
-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04

화

광야 학교의 목적

신 8:1-4

-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 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광야 학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신 8:1-10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 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forty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ancesto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so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Observe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walking in obedience to him and revering him.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For the LORD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a land with brooks, streams, and deep springs gushing out into the valleys and hills;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a land with wheat and barley, vines and fig trees, pomegranates, olive oil and honey;

9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는 것이라

a land where bread will not be scarce and you will lack nothing; a land where the rocks are iron and you can dig copper out of the hills.

10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praise the LORD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6

목

여호수아를 세우라

신 31:1-4

- 1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Then Moses went ou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 2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 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I am now a hundred and twenty years old and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The LORD has said to me, 'You shall not cross the Jordan.'

- 3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The LORD your God himself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He will destroy these nations before you,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their land. Joshua also will cross over ahead of you, as the LORD said.

- 4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And the LORD will do to them what he did to Sihon and Og, the kings of the Amorites, whom he destroyed along with their lan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신 31:5-15

5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칠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신 3:23-28 & 34:1-4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At that time I pleaded with the LORD: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Sovereign LORD, you have begun to show to your servant your greatness and your strong hand. For what god is there in heaven or on earth who can do the deeds and mighty works you do?"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Let me go over and see the good land beyond the Jordan—that fine hill country and Lebanon."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But because of you the LORD was angry with me and would not listen to me. "That is enough," the LORD said. "Do not speak to me anymore about this matter."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ook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Look at the land with your own eyes, since you are not going to cross this Jordan.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But commission Joshua, and encourage and strengthen him, for he will lead this people across and will cause them to inherit the land that you will see."

[신 34:1-4]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Then Moses climbed Mount Nebo from the plains of Moab to the top of Pisgah, across from Jericho. There the LORD showed him the whole land—from Gilead to Dan,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all of Naphtali, the territory of Ephraim and Manasseh, all the land of Judah as far as the Mediterranean Sea,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the Negev and the whole region from the Valley of Jericho, the City of Palms, as far as Zoar.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Then the LORD said to him, "This is the land I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when I said, 'I will give it to your descendants.' I have let you see it with your eyes, but you will not cross over into i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9

주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사 41:8-17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아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But you,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you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 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I took you from the ends of the earth, from its farthest corners I called you. I said, ‘You are my servant’; I have chosen you and have not rejected you.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All who rage against you will surely be ashamed and disgraced; those who oppose you will be as nothing and perish.

12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Though you search for your enemies, you will not find them. Those who wage war against you will be as nothing at all.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takes hold of your right hand and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14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Do not be afraid, you worm Jacob, little Israel, do not fear, for I myself will help you,” declares the LORD, your Redeemer, the Holy One of Israel.

15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See, I will make you into a threshing sledge, new and sharp, with many teeth.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crush them, and reduce the hills to chaff.

16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You will winnow them, the wind will pick them up, and a gale will blow them away. But you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glory in the Holy One of Israel.

17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The poor and needy search for water, but there is none; their tongues are parched with thirst. But I the LORD will answer them; I, the God of Israel, will not forsake them.

10

월

여러분이어 안심하라

행 27:20-25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량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the storm continued raging,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어 내 말을 듣고 그 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After they had gone a long time without food, Paul stood up before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not to sail from Crete; then you would have spared yourselves this damage and loss.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But now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because not one of you will be lost; only the ship will be destroyed.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So keep up your courage,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11

화

모세의 죽음

신 34:5-12

-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And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there in Moab, as the LORD had said.

- 6 벧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He buried him in Moab, in the valley opposite Beth Peor, but to this day no one knows where his grave is.

-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Moses was a hundred and twenty years old when he died, yet his eyes were not weak nor his strength gone.

-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곡하니라

The Israelites grieved for Moses in the plains of Moab thirty days, until the time of weeping and mourning was over.

-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Now Joshua son of Nun wa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because Moses had laid his hands on him. So the Israelites listened to him and did what the LORD had commanded Moses.

-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who did all those signs and wonders the LORD sent him to do in Egypt—to Pharaoh and to all his officials and to his whole land.

-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For no one has ever shown the mighty power or performed the awesome deeds that Moses did in the sight of all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수 1:1-9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ide: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to the Israelites.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all the Hittite country—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ancestors to give them.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수 1:1-9

- 1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 씀하여 이르시되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Joshua son of Nun, Moses' aide: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n, you and all these people, get ready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the land I am about to give to them—to the Israelites.

-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I will give you every place where you set your foot, as I promised Moses.

-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Your territory will extend from the desert to Lebanon, and from the great river, the Euphrates—all the Hittite country—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west.

-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No one will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ancestors to give them.

-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수 1:10-15

10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So Joshua ordered the officers of the people:

11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Go through the camp and tell the people, 'Get your provisions ready. Three days from now you will cross the Jordan here to go in and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for your own.'"

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But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Joshua said,

13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Remember the command that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after he said, 'The LORD your God will give you rest by giving you this land.'

14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 가서 그들을 돕되

Your wives, your children and your livestock may stay in the land that Moses gave you east of the Jordan, but all your fighting men, ready for battle, must cross over ahead of your fellow Israelites. You are to help them

15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until the LORD gives them rest, as he has done for you, and until they too have taken possession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them. After that, you may go back and occupy your own land, which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gave you east of the Jordan toward the sunris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수 1:16-18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Then they answered Joshua,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we will do, and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17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Just as we fully obeyed Moses, so we will obey you. Only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as he was with Moses.

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Whoever rebels against your word and does not obey it, whatever you may command them, will be put to death.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6

주일

한(恨)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삼상 1:1-20, 26-28

-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솥의 현손이더라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Ramathaim, a Zuphite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son of Jeroham, the son of Elihu, the son of Tohu, the son of Zuph, an Ephraimite.

-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He had two wives; one was called Hannah and the other Peninnah. Peninnah had children, but Hannah had none.

-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Year after year this man went up from his town to worship and sacrifice to the LORD Almighty at Shiloh, where Hophni and Phinehas, the two sons of Eli, were priests of the LORD.

-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Whenever the day came for Elkanah to sacrifice, he would give portions of the meat to his wife Peninnah and to all her sons and daughters.

-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But to Hannah he gave a double portion because he loved her, and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Because the LORD had closed Hannah's womb, her rival kept provoking her in order to irritate her.

-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This went on year after year. Whenever Hannah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her rival provoked her till she wept and would not eat.

-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Her husband Elkanah would say to her, "Hannah, why are you weeping? Why don't you eat? Why are you downhearted? Don't I mean more to you than ten sons?"

-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Once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in Shiloh, Hannah stood up. Now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his chair by the doorpost of the LORD's house.

-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In her deep anguish Hannah prayed to the LORD, weeping bitterly.

-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And she made a vow, saying, "LORD Almighty, if you will only look on your servant's misery and remember me, and not forget your servant but give her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will ever be used on his head."

-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As she kept on praying to the LORD, Eli observed her mouth.

-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 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Hannah was praying in her heart, and her lips were moving but her voice was not heard. Eli thought she was drunk

-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and said to her,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drunk? Put away your wine."

-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Not so, my lord," Hannah replied, "I am a woman who is deeply troubled. I have not been drinking wine or beer;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Do not take your servant for a wicked woman; I have been praying here out of my great anguish and grief."

-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Eli answered, "Go in peace, and may the God of Israel grant you what you have asked of him."

-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 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She said, "May your servant find favor in your eyes." Then she went her way and ate something, and her face was no longer downcast.

-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Early the next morning they arose and worshiped before the LORD and then went back to their home at Ramah. Elkanah made love to his wife Hannah, and the LORD remembered her.

-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So in the course of time Hannah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son. She named him Samuel, saying, "Because I asked the LORD for him."

[삼상 1:26-28]

- 26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 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and she said to him, "Pardon me, my lord. As surely as you live, I am the woman who stood here beside you praying to the LORD.

-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라

I prayed for this child, and the LORD has granted me what I asked of him.

-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So now I give him to the LORD. For his whole life he will be given over to the LORD." And he worshiped the LORD there.

17

월

욥이 시험받은 이유

욥 1:6-12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One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with them.

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The LORD said to Satan, "Where have you come from?" Satan answered the LORD, "From roaming throughout the earth, going back and forth on it."

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Then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ere is no one on earth like him; he is blameless and upright, a man who fears God and shuns evil."

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Does Job fear God for nothing?" Satan replied.

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율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Have you not put a hedge around him and his household and everything he has? You have blessed the work of his hands, so that his flocks and herds are spread throughout the land.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But now stretch out your hand and strike everything he has, and he will surely curse you to your face."

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The LORD said to Satan, "Very well, then, everything he has is in your power, but on the man himself do not lay a finger." Then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다

수 2:1-11

-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 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 6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 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라합의 믿음

수 2:12-24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23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수 3:1-8

- 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Early in the morning Joshua and all the Israelites set out from Shittim and went to the Jordan, where they camped before crossing over.

- 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After three days the officers went throughout the camp,

-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giving orders to the people: "When you se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Levitical priests carrying it, you are to move out from your positions and follow it.

-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Then you will know which way to go, since you have never been this way before. But keep a distance of about two thousand cubits between you and the ark; do not go near it."

-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Joshua told the people, "Consecrate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Joshua said to the priests,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pass on ahead of the people." So they took it up and went ahead of them.

-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And the LORD said to Joshua, "Today I will begin to exalt you in the eyes of all Israel, so they may know that I am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 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Tell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covenant: 'When you reach the edge of the Jordan's waters, go and stand in the river.'"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기적의 요단강 도하

수 3:7-17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 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 을 건너가나니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 씩 열두 명을 택하라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 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 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 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 나아가니라

15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 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에 잠기자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 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 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 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 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 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길갈의 열두 돌

수 4:1-18

-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When the whole nation had finished crossing the Jordan, the LORD said to Joshua,
-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Choose twelve men from among the people, one from each tribe,
-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and tell them to take up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from right where the priests are standing, and carry them over with you and put them down at the place where you stay tonight."
-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So Joshua called together the twelve men he had appointed from the Israelites, one from each tribe,
-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and said to them, "Go over before the ark of the LORD your God into the middle of the Jordan. Each of you is to take up a stone on his should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to serve as a sign among you. In the future, when your children ask you, 'What do these stones mean?'
-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tell them that the flow of the Jordan was cut off before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When it crossed the Jordan, the waters of the Jordan were cut off. These stones are to be a memorial to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So the Israelites did as Joshua commanded them. They took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Israelites, as the LORD had told Joshua; and they carried them over with them to their camp, where they put them dow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Joshua set up the twelve stones that had been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t the spot where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had stood. And they are there to this day.

10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Now the priests who carried the ark remained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Jordan until everything the LORD had commanded Joshua was done by the people, just as Moses had directed Joshua. The people hurried over,

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and as soon as all of them had crossed, the ark of the LORD and the priests came to the other side while the people watched.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The men of Reuben, Gad and the half-tribe of Manasseh crossed over, ready for battle, in front of the Israelites, as Moses had directed them.

13 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About forty thousand armed for battle crossed over before the LORD to the plains of Jericho for war.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That day the LORD exalted Joshua in the sight of all Israel; and they stood in awe of him all the days of his life, just as they had stood in awe of Moses.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Command the priests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law to come up out of the Jordan."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So Joshua commanded the priests, "Come up out of the Jordan."

18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And the priests came up out of the river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No sooner had they set their feet on the dry ground than the waters of the Jordan returned to their place and ran at flood stage as befor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주일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 16:31-33 & 히 4:15-16

[요 16:31-33]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Do you now believe?” Jesus replied.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A time is coming and in fact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to your own home. You will leave
me all alone. Yet I am not alone, for my Father is with
me.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
라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히 4:15-16]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등
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e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yet he did not sin.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
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24

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마 1:18-25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pregnant through the Holy Spirit.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faithful to the law, and yet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라 하니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 이라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When Joseph woke up, he did what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Mary home as his wife.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But he did not consummate their marriage until she gave birth to a son. And he gave him the name Jesus.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수 4:19-24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러
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 치매

On the ten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people went
up from the Jordan and camped at Gilgal on the
eastern border of Jericho.

20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
갈에 세우고

And Joshua set up at Gilgal the twelve stones they
had taken out of the Jordan.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parents, 'What do these
stones mean?'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
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
음이라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2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
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
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
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For the LORD your God dried up the Jordan before
you until you had crossed over. The LORD your God
did to the Jordan what he had done to the Red Sea
when he dried it up before us until we had crossed
over.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
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
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He did this so that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might
know that the hand of the LORD is powerful and so
that you might always fear the LORD your God."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할례와 유월절

수 5:1-10

-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 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 5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 6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시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 7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 8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 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목

승리를 위한 준비

수 5:11-15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The day after the Passover, that very day, they ate some of the produce of the land: unleavened bread and roasted grain.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The manna stopped the day after they ate this food from the land; there was no longer any manna for the Israelites, but that year they ate the produce of Canaan.

13 여호수아가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Now when Joshua was near Jericho, he looked up and saw a man standing in front of him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Joshua went up to him and asked,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그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Neither," he replied, "but as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LORD I have now come." Then Joshua fell facedown to the ground in reverence, and asked him, "What message does my Lord have for his servant?"

15 여호와와 그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The commander of the LORD's army replied,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And Joshua did so.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수 6:1-9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Now the gates of Jericho were securely barred because of the Israelites. No one went out and no one came in.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See,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along with its king and its fighting men.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March around the city once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six days.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of rams' horns in front of the ark. On the seventh day, march around the city seven times, with the priests blowing the trumpets.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When you hear them sound a long blast on the trumpets, have the whole army give a loud shout; then the wall of the city will collapse and the army will go up, everyone straight in."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So Joshua son of Nun called the priests and said to them,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and have seven priests carry trumpets in front of it."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And he ordered the army, "Advance! March around the city, with an armed guard going ahead of the ark of the LORD."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When Joshua had spoken to the people, the seven priests carrying the seven trumpets before the LORD went forward, blowing their trumpets, and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ollowed them.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The armed guard marched ahead of the priests who blew the trumpets, and the rear guard followed the ark. All this time the trumpets were sound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01

토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수 6:10-21

-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 11 여호와와 그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그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와 그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 15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던라
- 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 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 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 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와 그의 궤 사이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 20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 21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5.
02

대화스쿨 간증

01

1. 김은혜P 청년 (청년1부)
2. 최유나A 성도 (E강남공동체)
3. 이선학 성도 (E서초공동체)
4. 유현정 성도 (W서초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배운 대화스쿨

김은혜P 청년 (청년1부)



대화스쿨을 듣기 전 교회 공동체의 지체와의 작은 말다툼을 통해 지혜로운 대화 방법의 필요를 느끼고 있던 차에 대화스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안에 다

들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쁘게 다듬어 가시려는 사랑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신청을 했습니다. 첫 주 강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나, 건강한 자아상'이었는데, 강사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관찰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저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 하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사는 꿀 팁들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제 안에서 성령의 파워가 솟아나 저를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부정적인 감정은 주님께 패스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 강의에서는 분노와 존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 '내가 느끼는 부당한 감정을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7가지 존중 연습법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고,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화가 나는 상황에서 연습법에 따라 선포를 했더니, 정말 화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는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넷째 주 강의에서는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대화 스킬을 배울 수 있었는데,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STOP'을 외치고, '지금 누구의 마음이 힘들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적극적 경청을 통해 상대의 깊은 마음의 감정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올라온 감정이 수용되어야 그 자리에 이성이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직접 실습까지 해볼 수 있어서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문제 소유 가리기'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강의를 저만 듣는 것이 정말 안타까워서 주변에 친한 청년들에게 '대화스쿨이 얼마나 좋은지' 설파하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지혜 있는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값진 보물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정의로 저를 다듬어 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더욱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의 힘을 가지고 소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강사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최유나A 성도 (E강남공동체)



저는 보이스를 주제로 강의를 하며 특히 '말의 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 절망, 어둠 속에 있던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

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면서 겹겹이 쌓여 있던 어두운 것들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소리나 말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안의 트라우마 같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마음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컨설팅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보완하고 싶어 선택한 대화스쿨은 "내 경험과 내용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주 차에 건강한 자아상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임을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3주 차에는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특히 허그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안아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습니다.

4, 5주 차는 실제적인 대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아,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하던 내용들인데 사실 스스로 공부하며 가르치다 보니 궁금한 점들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소되며 조각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말의 힘을 알면서도 나의 가족, 나의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인의 특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사과를, 남편에게는 실천을 하는 중입니다.

역시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품에 맞게 저를 변화시키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나라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의 힘을 가지고 소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강사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선학 성도 (E서초공동체)



아내의 권유로 대화스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화스쿨 1기를 이미 수료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대화스쿨 강의가 좋았다는 기억이 있었기에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시간부터 저의 부족했던 부분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을 통하여 저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한 자아상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자아상이란 교과서 속의 이론처럼 느껴졌으나 강의를 듣고 건강한 자아상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분노, 화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쉽게 화를 내는 것이기에 때문에 화를 내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나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치해 주신 조절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 강사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감 대화법' 강의는 저에게 '대화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란 그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화스쿨을 통해 저의 삶에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넷째 주 강사님의 '반영적 경청'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의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었습니다. 많은 예시들이 제가 평소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 실제 제가 다른 사람들,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저는 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며, 때로는 훈계나 충고를, 때로는 논리적인 설득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때는 제가 참 뭉클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5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대화스쿨을 통해 배운 것들은 저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나 화가 날 때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결과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자', '문제의 소유를 잘 가려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등의 과제들을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의 방법을 알게 해 준 대화스쿨

유현정 성도 (W서초공동체)



핵심을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원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대화로 알고 살아온 저에게 감정은 여유 있는 자들의 놀이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내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진행 방향에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기준 삼아 줄곧 달려온 시간들이 솔직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주변 누구의 감정도 돌보고 헤아려주고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며 함께 가야 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을 내기에 인색했던 저게 대화스쿨은 처음으로 진지함을 갖게 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스쿨은 5가지의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삶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한 진행이었습니다. 지원은 해 놓고 개강 직전 허리통증 유발로 다음으로 미루려 했던 저는 어려운 몸을 이끌고 참여함이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들의 이익을 경청하고 문제를 소유한 자들의 감정을 읽어주기에 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된 시

간이었습니. 늘 제시하고 제안하며 문제해결에만 급급했던 저는 상대의 감정 읽기와 공감대 형성에는 거의 빵점인 사람이었습니다.

과제로 내주신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목록 즉, 극단의 충고, 해결 방안 제시, 논리적 설득, 논쟁, 분석, 진단, 캐묻기는 심문에 해당하는 큰 걸림돌이라는 명확한 진단에 부끄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막연함으로 평생을 성경 하나만 붙들고 있는 제가 남에게도 그것만 강요하며 걷는 삶이 얼마나 우격다짐이었는지 이제라도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대화스쿨을 통해 얻게 된 실천방안과 적용 가능한 지혜의 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용하여 주님의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과 새로운교회에 감사하고 특별히 강력하게 추천해 주신 김 집사님과 마지막 순간 육신의 한계로 망설였던 저를 끝까지 도전해 주신 김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화의 방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으로의 길을 열어 주신 대화스쿨에 감사드립니다.

2025.
02

CES 멘티스쿨 간증

02

1. 박찬우A 성도 (N서초공동체)
2. 탁미현 성도 (E강남공동체)
3. 강예원 청년 (청년2부)
4. 송장면 성도 (W서초공동체)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영적 PT 프로그램

박찬우A 성도 (N서초공동체)



저는 혈액형 A형에 MBTI는 ISFJ형입니다. 비교적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남의 말에 조금은 공감할 줄 알고 반듯한 일상을 살려하고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나름 '적당한 크리스천'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굳이 CES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교회를 다닌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난 시간의 구력에 비해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가 왜 죄인가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보혈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왜 다니고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야말로 수준 미달의 '애매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애매한 크리스천' 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그 간 양육프로그램을 외면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멘토님과의 운명적 만남이 있었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멘토님은 저의 선배로서 30여 년 전 병원실습을 나온 후배들에게는 꽤나 냉

소적이었던 분으로 굳이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선배는 예전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많은 사역을 몸소 실천하며 영적으로 넘사벽의 경지에 계셨습니다. 선배님의 권유로 중보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선뜻 저의 멘토로 나서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질문에 저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간간이 예전 선배님의 모습이 보이는 듯했지만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들이 교제가 지속될수록 선배님을 사숙하게 되었고 영적 멘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멘티스쿨은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데 개인 영적 PT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사람이 하는 것을 곁눈질하며 따라 하던 운동이 이제는 상체운동, 하체운동, 유산소 운동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운동이라도 어떤 자세로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어떤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장이나 헬스장을 오가고 계시다면 시간을 내어 영적 PT를 받아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제대로인 운동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늘어나는 근육량을 통해 온전히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제8장에서 말하는 "P.R.E.S.S.; P(Pray) R(Read) E(Exegesis) S(Share to me) S(Share with others)" 방법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혼자 하는 운동인만큼 나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 곁에 멘토님이 계시고 새로운교회가 있어 든든합니다.

앞선 죄인.. 구원.. 십자가 보혈.. 교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슬들이 잘 꿰어져 나의 목걸이로 탄생할 수 있었고 제법 근사하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막연하게 제가 찾으려 했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방법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6장에서 제가 찾으려던 것들이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어렵풋하게 알던 것들이 안개가 걷힌 듯 명확하게 나타났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두레박과 우물 정도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일상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겨

나고 있습니다. ISFJ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열리지 못하던 말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실망하고 낙담하는 환자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응답은 없으시지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연단하고 계시고 최상의 시기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실 거라 말을 건네곤 합니다.

'적당한 크리스천'이라 생각하며 그간 애써 외면하였던 CES 양육 프로그램은 저와 같은 '애매한 크리스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적 근육 단련을 위해 적극 추천 드리며, 문득 스포츠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Just Do it"이라고.

이제는 직장가 가정과 교회를 오가는 일상에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준 새로운교회와 멘토로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제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하게 해 준 CES

탁미현 성도 (E강남공동체)



모태신앙, 한동대학교 졸업, 크리스천 대표님 회사에서 일한 지 12년 차입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채니티였으므로 순종적이고 성실한

성향의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주말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저 한 구석에는 만약에 제가 불교 집안, 불교 대학교 졸업, 불교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일마다 경전을 읊었다면 불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2023년 새로운교회 예배를 더케이호텔 겨울성령부흥집회에서 드리던 날,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한 홍 목사님께서서는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 저는 갑자기 저의 오른쪽 무릎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쪽 무릎에도 손을 대 보았지만 건강했던 왼쪽 무릎에서는 차가운 기운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팠

던 무릎은 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틀 뒤 즈음 깨끗이 나았습니다. 의심 많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로운교회로 인도했던 너무나 사랑하는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CES 멘티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며 이미 한 홍 목사님의 도서 6권을 집중해서 읽었고, 그중에 기독교 에센스 책도 있었으므로 CES멘티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변호사이신 멘토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던 시기에 방문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님의 도움과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언제나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나눔을 통해 저와 멘토님,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저 문 밖에서 서 두드리시며 제가 활짝 문을 열기를 기

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CES 모임을 지속할수록 저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낮 동안의 회사 생활과 저녁 육아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한 후 잠들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럴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인들의 삶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등한시해왔던 저에게, 이 복음 전파는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설레는 일이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깨

달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신자를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 주말, 두 딸 육아에 힘써 준 남편, 매주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멘토님,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새로운교회와 한 홍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때로는 가정예배 같았고, 단짝친구와의 달콤한 데이트 같았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강예원A 청년 (청년2부)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믿음생활에 적극적이진 않았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특별히 교회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고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옮겨 다니며 개인적이고 소소한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다행히도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주셨던 친할아버지 덕분에 하루종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저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제 인생의 '키다리 아저씨' 집사님을 통해 새로운교회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교회에 오게 된 지 이제 막 1년이 된 아직은 "새로 온" 교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2주 뒤 소천하신 제 아버지의 '하나님을 잘 믿어라'라는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용기 내어 새가족에 등록하고, 세례 - 커피브레이크 - 성경속으로 등을 차례차례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 양육과정에서 만나 뵈게 된 형제자매 분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권

유로 CES 멘토링 과정을 알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선한 타이밍으로 '성경속으로'에 이어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CES 과정의 멘토님께서도 반갑고 감사하게도 직전 제 '성경속으로' 수업에서 총무로 섬기시며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간식을 많이 챙겨주시고, 제 세례 받는 모습도 예쁘게 기억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집사님과 CES 나눔은 매주 기다려지는 주일 예배처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믿음', '교회', '기도와 말씀 묵상' 등 제가 더욱 좋아하는 주제를 나누기 전날에는 가끔 설레어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매주 CES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길에 다음 CES 일정을 미리 잡아놓으며 "며칠 있으면 또 CES 한다" 이렇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각자의 삶에 여념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시간을 맞추어 1주일에 한 번씩 오랜 시간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부담이 되는 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소소한 연락들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작은 연습들을 할 수 있었고, 교재를 예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어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오롯이 하나님과 말씀과 나만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

이하게 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멘토님과 의 시간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들은, 사실 기독교 에센스 교재를 통한 나눔도 있었지만, 멘토링 시작과 끝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해 주셨던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변에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형제자매들을 보며 "나도 기도하는 엄마의 딸이 되었으면... 엄마의 기도를 받고 더 힘내어 살아보고 싶다..." 이런 아쉬움과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멘토님의 기도는 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엄마의 기도를 느끼게 해 주신 그 무엇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저희 멘토님을 교회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내 교회엄마 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와의 CES 나눔을 마치고 '성경속으로' 섬김을 위해 가시는 멘토님을 따라 7층 새로운 홀에 올라가 간식을 준비하시는 멘토님 곁에서 챔버팀 찬양 반주 연습을 하던 순간들, 반주에 따라 흥얼거리시는 멘토님 노랫소리까지...

깊어가던 가을 저녁 창가의 빛과 풍경들까지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마음의 여운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교재를 공부하기 위해 시작된 CES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는 양육의 의미를 더하여 때로는 가정예배 같았고, 단짝친구와의 달콤한 데이트 같았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과 인연들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교회엄마♥'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곁에서 저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아빠에게 아빠가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어서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빠의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혼과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준 CES

송장면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1996년 25살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 주는 분을 통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 청년부 활동 중에 자매를 만나

결혼하고 두 자녀를 낳고 28년간 열심히 신앙 생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지만 예배 후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영적인 공허함이 문득 들곤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있어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부끄럽게도 QT나 성경말씀을 정독해본 적이 없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공예배만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서서히 무뎠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제 맘 아시죠?”하면서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직접 예배드릴 때는 그나마 영적인 호흡이라도 할 수 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 기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제 영혼은 가뭄에 메말라 버린 논바닥처럼 되었습니다. 28년 동안 다니던 교회도 내부분열로 문제가 생기면서 아내는 먼저 교회를 떠나 새로운교회에서 예배를 하였고 저는 여전히 모교회에 남아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10월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죽음으로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었는데 새로운 교회 장례팀에서 방문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아내에게 제가 “우리 가정이 회복하려면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조금씩 영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은 미루며 예배드리다가 122기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배정은 방학기간이라 순장님 연락을 기다리던 중에 CES 멘티 모집 후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내도 멘티 과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감 하루를 남기고 함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에 배정받게 될까? 어떤 CES 멘토님을 만나게 될까? 걱정반 설렘 반으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순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제가 W서초로 공동체 배정이 되었고, 이번 CES 멘토도 담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예배 때 한 번, CES 때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멘토님을 2번씩 보게 되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CES를 통하여 제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제 영혼이

영혼의 단비로 서서히 회복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28년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 같은 효자랑은 못 살겠다”라고 가끔씩 빼 있는 농담을 하곤 하였는데 아내의 마음속의 상처들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했던 시간들로 인하여 저 역시, 가진 상처들을 CES와 멘토님과 나눔을 통하여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K호텔에 주차 후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는 사색의 길로 걸어 예배 가는 길이 행복했고, 순예배와 CES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가까이 가려 하면 끝임 없이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나는 시간들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내 사이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받았던 오해와 상처들이 다시 비집고 들어와 넘어지기 일췌였습니다. 주일 전날 저녁에 아내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서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서 주일날 예배와 예배 후 있을 CES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가운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지 않고 영상으로 각자 예배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CES를 하는

게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예배에 가자고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CES에서 제 현재 상황을 멘토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멘토님께서 말씀과 권면을 통하여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먼저 기도 하고 멘토님이 마지막에 기도 해주셨는데 “주님, 살고 싶습니다. 멘티의 영혼, 멘티의 가정을 살려주세요”하는데 눈물, 콧물이 주룩주룩, 에스카페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자 둘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CES가 끝나고 K호텔로 걸어가면서 아내 손을 잡아주었는데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CES 12회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마지막 과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스스로 기도하기 힘들고 성경 읽고 묵상하기 힘드니 교회에서 해주는 성경공부를 틈틈이 신청하여 교회가 제 영혼을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려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회와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큰딸 지혜와 현재 군복무 중인 아들 태웅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내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 받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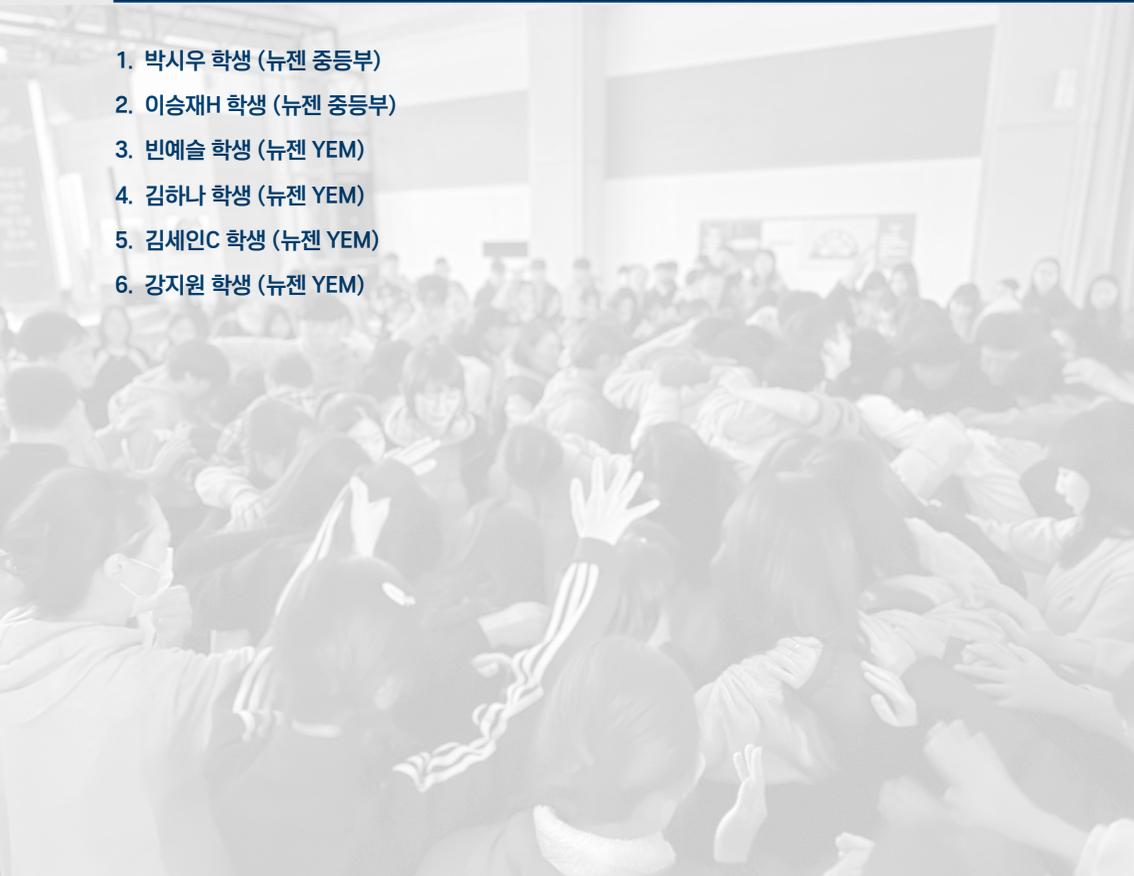
2025.
02

뉴젠 중등부, YEM 수련회 간증

IN WHO STRENGTHENS ME
FILM

03

1. 박시우 학생 (뉴젠 중등부)
2. 이승재H 학생 (뉴젠 중등부)
3. 빈예슬 학생 (뉴젠 YEM)
4. 김하나 학생 (뉴젠 YEM)
5. 김세인C 학생 (뉴젠 YEM)
6. 강지원 학생 (뉴젠 YEM)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첫 수련회

박시우 학생 (뉴젠 중등부)



이번 2025년 수련회는 저의 첫 수련회였습니다. 첫 수련회인 만큼 두려웠고, 떨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친구들과 주변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시고 이영찬 전도사님의 개회 예배로 활기차게 시작하여 재미있었습니다. 개회예배부터 토요일 저녁 집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날밤에 진행한 저녁 집회 예배가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잘 떠오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라는 설교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개의 재앙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의 근원 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동안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의 재앙으로 보여주신 것도 하나의 새롭게 배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선택이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와 유월절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은 다른 자들의 멸망이며 하나님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는 표적이 언약과 순종이라는 점도 새롭게 정보를 얻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다는 내용이 가장 흥미로웠고 저 자신을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도 맛있었고, 조끼리 모여서 풍선 높이 쌓기, 방 탈출 등 팀 내에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한 활동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다고 꼽을 정도로 좋았던 것은 저녁 집회에서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둥글게 원을 만들어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모두 함께 기도하니 소속감이 생겼고 서로 공감을 하며 기쁨, 슬픔, 모두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에서 중등부 선생님들을 향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수련회에 꼭 오고 싶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덕분에 뿌듯했고 즐거웠습니다. 중등부를 늘 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중등부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승재H 학생 (뉴젠 중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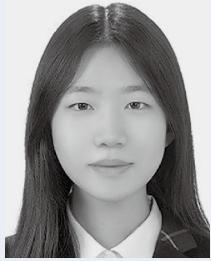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크나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번 수련회 때 분명히 하나님께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정말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초라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에게 축복받고 응원받은 만큼 저는 이번에는 정말 제 결심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또 다시 거짓말쟁이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호에 적힌 말씀대로 저는 못다 한 제 결심을 지키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Linsey Bin 빈예슬 학생
(뉴젠 YEM)

Through this retreat, I was able to make many good memories with both friends and God. This opportunity allowed me to pray deeply about my new school and friends. I felt like this retreat gave me a lot of blessings and comfort through praying to God and also having deep talks with close friends. I want to use this experience to pray to God more often and build a deeper relationship with God this year.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친구들과 하나님 모두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새롭게 가게 될 학교와 친구들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으로 올해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김하나 학생
(뉴젠 YEM)

일주일간 스스로의 게으름과 실망스러운 모습에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책하고, 이 괴로움을 들어주고 이해할 사람이 없으리라 단정지은 상태로 마지막 YEM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 내면 속 괴로움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고, YEM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예배에서 주님께서는 항상 절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 끔찍하게 싫어하고 스스로를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 나의 문제가 이토록 날 괴롭히던 이유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했던 게 아닌, 스스로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풀어내려 했기 때문이란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려움을 주님께 털어놓고 힘들다는 걸 모두 고백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Seine Kim 김세인C 학생
(뉴젠 YEM)

I must admit, I never felt a “Holy Breakthrough” during post retreats. But this time it was a bit different. Not a whole breakthrough. More like half or semi, but nevertheless, it was a progress. I always went there for memories, like staying up, food, etc. Although the memories are strong, this time I actually think I got closer to God. Now that I am starting a new school year, I think I need extra help, and the retreat made me realize God can and will. I was doubting my faith and worried about school, friends, etc. And I was comforted by the thought that if I am in Him, He will give me strength.

솔직하게 말하면, 이전 수련회에서는 ‘거룩한 돌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완벽한 돌파는 아니고, 절반의 돌파였지만, 그래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늦게까지 친구들과 깨어 있거나, 맛있는 음식과 같은 추억을 위해 수련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었고, 학교, 친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Jiwon Kang 강지원 학생
(뉴젠 YEM)

요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번 수련회 때 그게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에서 주제가 “In Him who Strengthens Me”였는데, 새벽기도에서 말씀카드를 뽑았을 때 수련회와 똑같은 주제로 뽑았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Catholic(천주교)이신데, 저에게 갑자기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제가 말씀카드와 똑같았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In Him who Strengthens Me”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5.
02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드림씨티선교교회
(서울역 노숙자 사역)

04



| 러브 미니스트리 단체소개 |

드림씨티선교교회를 소개합니다!

잠들지 않는 교회, 365일 24시간... 꿈을 만들어 갑니다!

2011년 4월에 시작된 드림씨티... 어느새 15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시간도 있지만 어느새 그도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후에 120-130명이었던 예배 인원이 잠시 줄었지만 24년에는 다시 그때의 인원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주 3회로 늘어난 한방진료와 매일 제공되는 이발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드림씨티는 설립 때부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교회,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 재정과 운영을 날마다 투명하게 공개 (홈페이지)하는 교회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기에 현금 없는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드림씨티의 사회적 역할과 투명한 사회를 추구하는 접근에 대해 좋게 보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드림씨티에선 전화, 팩스, 이발, 컴퓨터/인터넷(16대), 의료진료(치과/양방), 한방진료, 법률상담, 증명사진, 영화상영, 응급약품, 생필품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층 인터넷 카페는 하루 종일 30-40여 명이 인터넷과 장기, 바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4년 겨울, 경제가 어려워지며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힘든 시간으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드림씨티를 찾는 이들도 좀 더 늘어나고 잡자리를 문의하는 사람도 평상시보다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모두 힘든 시기인데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사역 지원: 컴퓨터, 음향시설 등 무상 지원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25%가 노인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엔 65세 이상 노인이 35%, 60세 이상은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에 관한 부분은 일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교회가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정서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맺어준다면 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TV, 오락시설, 안마기 등의 의료편의시설, 노래교실, 이발/미용, 휴식공간, 커피자판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간식과

식사 제공으로 노인들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머물면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림씨티에선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에게 초창기에 필요한 교회에 TV(70인치 2대)와 컴퓨터(10대), 노래방기기와 음향시설, 오락시설과 커피자판기와 안마 시설, 카페용 탁자와 의자, CCTV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연결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 자원봉사자 모집

드림씨티에선 10명 정도의 자원 봉사자가 매일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방진료는 토요일, 한방진료는 주 3일(목/토/일) 진행하는데 모두 자원 봉사자로 오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수가 확대되면 교인 외에 외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이나 미술교실,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일반인 자원봉사로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한다면 지역에서 교회의 인지도 확대와 함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고 복음 전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와 함께 하는 교회로서 지역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드림씨티에선 어느새 15년간 노숙인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으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노숙인 중 상황이 힘든 사람은 정부지원으로 방을 얻어 떠나면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노숙인이 줄어든 상황은 반갑지만 노인층의 빈곤율이 40% 정도에 이르고 향후 노인비율이 점점 늘어나기에 그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가오는 사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찾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교회가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Him Who Strengthens Me



| 일시 |
2024년 12월 31일(화)-
2025년 3월 1일(토)
매주 화-토 오전 6시

| 장소 |
본당 및
각 기도스테이션(화-금)

문의 | 이사무엘 목사, 카톡ID : saerounchurch

Wednesday Prayer Worship

2월 수요일기도예배 기도

2/5 이성훈 목사

2/12 이승호 목사

2/19 김선교 목사

2/26 김소리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